공론조사 수용반대 우회적 표현

조계종, 북한산 도로 3단계 해결방안 제시 배경

■3단계 해결절차란?

조계종이 정부측에 제안한 3단계는 크게 공론조사 실시 전(1단계)과 실시 시(2단계), 실시 후(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조계종은 1단계로서 △불공정하게 진행된 노선재검토위원회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사과할 것 △무단 발간한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 폐기 및 합의하여 정식으로 재발간 등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국립공원 훼손과 무자비적인 환경훼손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선행 △국립공원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역사문화환경보전에 대한 사전영향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안노선 설계도면 마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리변동분석 등에 대해 재조사가 면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공약 이행 기본입장 변함없어
'미국과 북한산' 사례 참고해야 여론

2단계로는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 정부가 1:1로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주관기관, 표본추출 방식, 토론자 선정, 방송사 선정, 절차, 기간, 정보제공 등에 대해 합의 등이 이뤄져야 하며, "환경사안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3단계로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 정부가 1:1로 참여하는 대안노선 설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의 중립적인 기관이 노선을 설계 및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경과 전망

조계종이 공론조사를 실시 할 경우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나온 결과물로 보인다.

조계종 사회부 김영주 과장이 10월 28일 사회부에서 열린 공론조사 설명회에서 "공론조사에 조계종이 답할 책임이 때문에 사회적 참여 절차를 밟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3단계 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이라는 종단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illegible] 변동분석 등이 면밀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적어도 1~2년 이상은 걸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illegible]

◇10월 27일 회룡사에서 열린 '방생법회' 장면

■미국 블루리지 파크웨이에서 배우자

[illegible] 블루리지 파크웨이(Blue Ridge Parkway) [illegible] 그랜드파더 마운틴(Grandfather Mountain) 구간 12km를 [illegible] 1967년 7400여km 대부분이 완공됐다. [illegible]

[illegible]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단차원 지원 · 정책부재가 원인

불교계 운영 유치원 왜 급감했나

포교원이 사전 파악한 265개 불교계 유치원 중 132개만이 현존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교원이 애초 추산한 265개의 불교계 유치원은 불교유아교육협회가 보유한 명단과 전화번호부상의 불교계 유치원의 합산 수치였다. 그 동안 포교원은 포교유인적지원부가 발표한 불교계 유치원 현황수치를 등록이 안됐거나 집계과정에서 누락된 사설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250여개의 불교계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왔었다. 그 동안 각 사찰이나 포교원별 자체조사만 몇 차례 있었을 뿐 종단차원의 대대적인 유치원 현황파악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 없는 통계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교계 유치원의 극심한 감소현상은 이러한 수치적 오류뿐 아니라 종단차원의 지원과 정책부재가 가속화시킨 결과라는게 불교어린이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물론 취학 전 아동의 급감현상에 따른 유치원 폐원을 전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교육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불교계 현실에서 불교계 유치원의 폐원원인은 어린이들의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의 부족과 그것을 교육시킬 전문지도자 부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또한 상당수 불교계 유치원이 어린이집 형식의 사설보육기관형식으로 용도전환이 되거나 운영자 개인적인 용도에 의해 명의전환 되는 것은 일선 담당자들의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 인식부족과 사명감 부족과 종단의 관리소홀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결국 불교계 유치원이 하나, 둘 문을 닫는 것은 종단의 어린이 포교에 관한 관심부족과 체계적이고 중 · 장기적인 정책과 지원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교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지속적인 추가 조사 · 분석 작업을 걸쳐 어린이 포교 지침서를 연구 · 발간할 방침이다. 또 불교유아교육협회를 중심으로 각 유치원간 네트워크와 종단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교구본사 중심의 어린이 포교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오계는 인류공동의 생활규범

교토 한중일 불교교류 우호대회 폐막

"불살생(不殺生)의 생활화를 통해 인류 평화를 실현하자."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 지도자들이 삼국의 불교 교류를 통한 인류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9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한 제6차 한중일 불교교류우호대회가 "계율의 실천을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교토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불교와 평화', '일상생활과 불교의 계율'을 부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 법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12개 종단의 총무원장 등 110여 명이 참석했고, 고바야시 류쇼(小林隆彰)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성후이(聖輝)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등 한중일 삼국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교토 기요미즈데라(淸水寺)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 한중일법회에서 법장 스님은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이념갈등에 의한 전쟁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해갈등에 의한 전쟁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며 "부처님의 평화애호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의 가슴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심어주는 정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살생 생활화로 세계평화 이바지" 선언문

이어 인류 평화를 기원하며 기요미즈데라에서 정토종 총본산 지온인(知恩院)을 거쳐 릿쇼코세이카이(立正佼成會) 교토교회(京都教會)까지 교토 시가지 평화행진을 벌인 삼국 대표단은 릿쇼코세이카이에서 국제학술강연회에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측 단장인 고바야시 류쇼 스님은 '불교적 생활과 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불살생을 비롯한 오계는 인류 공동의 생활규범"이라며 "불자들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측 단장인 성후이 스님은 "불교가 제창하고 있는 비폭력 이념은 국제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 무아, 평등의 평화적 교의를 정신적으로 함양하고 실천한다면 인류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이끌어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불살생 계율은 인류평화를 위한 공동의 삶, 평등의 삶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며 "불살생 정신을 현대적 조명으로 해석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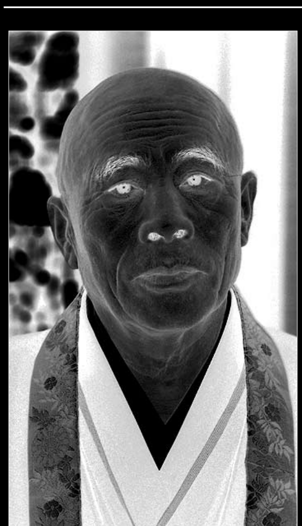
대회를 마치며 법장 스님은 "오늘 대회 참가단 전원의 점심 식비를 아껴 유니세프에 기금을 전달했는데 이는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앞으로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실질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내년 10월 예정인 베이징 대회로 이어진다. 대회에 앞서 10월 28일 열린 교류대표단 회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10주년을 맞는 내년 주제를 '한중일 불교 황금유대의 새로운 구상'으로 정하고 한국과 중국 외에 일본과도 수행 제휴단을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교토=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나쁜 말 끊는데 불교가 앞장서자"

대회 일본측 단장 고바야시 류쇼 스님



10월 29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준비한 일본측 단장 고바야시 류쇼(小林隆彰)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은 불교도의 역할에 대해 유난히 강조했다.

[illegible]

교토=권형진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야탑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입재법문 : 무애 광혜 큰스님(용인사 기획국장 · 흥룡사 주지)

우리절은 곤지암에 있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친 독송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원만 성취케 하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illegible]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곤지암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지장 및 입시기도 목련시명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첫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처 님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